
식민지 조선의 러시아 사회주의 수용과 동북아 연대*: 아나키즘-볼셰비즘, 동학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정혜정 (원광대학교, HK연구교수)

< 목 차 >

- I. 서론
- II. 조선의 사회주의 수용에서 아나코-코뮤니즘
 - 1. 크로포트킨의 아나코-코뮤니즘
 - 2. 상호부조론의 아나키즘 수용과 조선노동공제회
- III. 볼셰비즘과 아나키즘의 결합
 - 1. 아나키스트의 볼셰비즘 수용
 - 2. 신생활사(新生活社)와 아나코-볼셰비즘
 - 3. 아나코-볼셰비즘과 동북아시아
- IV. 조선의 사회주의 수용에서 아나코-코뮤니즘
- V. 볼셰비즘과 아나키즘의 결합

국문초록

조선의 사회주의 수용은 아나키즘과 볼셰비즘이 주류를 이루었고 양자는 상호 결합된 양상을 나타냈다. 이는 동북아시아적 현상으로서 러시아 볼셰비키 정부 성립 초기에도 러시아인 가운데는 아나키스트인 동시에 볼셰비키인 아나코-볼셰비키가 존재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이 창립되기 전 아나키즘이 초보적 볼셰비키들에게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6A3A02079082).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이미 정설로 되어 있다. 물론 사회주의 운동 초기에는 크로포트킨의 영향이 강했다. 스펜서가 주장했던 약육강식·적자생존의 사회진화론이 제국주의 침략과 수탈을 정당화했다면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은 동양의 정서에 맞았고, 제국주의에 맞설 수 있는 논리를 제공했다. 최초의 조선노동단체인 조선노동공제회(1920)와 사회주의계열의 신생활사(1922)는 초기 아나키즘의 수용과 아나코-볼셰비즘의 운동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조선노동공제회가 아나키즘에 입각하여 노동자의 주체적 자각과 교육·문화운동에 주력했다면 신생활사는 아나키즘을 소개하면서도 볼셰비즘에 방점을 두어 노동자 계급투쟁에 주력했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한편 조선 사회주의의 수용에서 주목되어야 할 것이 동학(천도교) 사회주의이다. 당시 천도교는 동학사상에 바탕 하여 아나키즘과 볼셰비즘을 비판적으로 수용했다. 특히 천도교 정규선은 사회연대의 정신에 근거한 사회주의를 표방했고, 미래사회는 진실한 인류동포, 형제적 관념으로 한 공산적 사회가 아니면 공산사회 실현은 불가능한 것이라 주장했다. 진정한 공산사회는 소유재산이 아니라 신격에 의한 “문화적 창조행위”에 있고, 이로부터 오는 “인류관계의 애정”에 바탕한 근본정신이 아니면 인류공동의 이상적 사회는 건설될 수 없다는 것이다.

주제어: 사회주의, 동북아 연대, 아나키즘, 볼셰비즘, 동학 사회주의

I. 서론

조선의 사회주의의 수용은 식민지 피압박민족에 대한 제국주의의 침략과 수탈이라는 정세판단에 따라 민족해방운동의 전략으로 채택된 것이었다. 즉 자본 제국주의 대 무산자·피압박 민족의 대립구도로서의 계급투쟁은 곧 민족해방운동이었다. 러시아 혁명의 성공과 피압박민족에 대한 레닌과 코민테른의 지원은 중국과 조선으로 하여금 사회주의를 수용하여 조·중·러 연대로 나아가게 하였고, 조선은 중국의 사회주의의 발전을 전망하면서 중국의 문제를 세계적 문제로 인식했다. 중국과 조선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에 조선은 중국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고 보았다.

조선의 사회주의의 수용은 일본으로부터의 사회주의 이론 소개, 중국의 신문

화운동과 사회혁명, 그리고 소련 코민테른 체제와 연동되면서 진행된 동북아시아 차원의 현상이었다. 동북아의 사회주의 수용은 맑스주의보다는 아나키즘과 맑스-레닌주의(볼셰비즘)가 주류를 이루었다. 또한 사회주의 운동 초기에는 크로포트킨의 영향이 강했다. 스펜서가 주장했던 약육강식적자생존의 사회진화론이 제국주의 침략과 수탈을 정당화했다면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은 동양의 정서에 맞았고, 제국주의에 맞설 수 있는 논리를 제공했다. 아나키즘과 볼셰비즘은 모두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지향하여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무산자 피압박민족의 동북아 연대, 무산자의 단결을 이끌어냈다.

1920년대 조선의 사회주의 수용 역시 아나키즘과 볼셰비즘으로 양분되었다.¹ 박종린은 조선의 사회주의 수용을 '3단계(다양한 사회주의→맑스주의→레닌주의)²'로 나누었지만 이는 맑스주의를 중심에 둔 구분이라서 아나키즘이 부각되지 못하였고, 아나키즘과 볼셰비즘의 혼재도 드러내지 못했다. 당시 맑스 이론은 서구사회의 틀로부터 만들어진 이론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볼셰비즘은 농민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피압박 무산자의 혁명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중국이나 조선의 현실과 통하는 면이 있었다. 러시아, 중국, 조선 모두 아나키즘과 볼셰비즘의 혼재와 연장선상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하였고, 점차 볼셰비즘으로 중심이 이동되었다. 물론 아나키즘과 볼셰비즘의 대립 양상도 나타났다지만 초기에는 주도권 문제가 더 컸고, 한 인물 안에서, 한 단체 안에서 양자가 혼재된 사례가 많았다.

또한 조선 사회주의 수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천도교이다. 천도교는 국내 초기 사회주의 수용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천도교 잡지 『개벽』 초기에 마르크스 이론을 소개했고, 동학에 바탕 하여 사회주의를 주체적으로 적용하였으며 동학혁명을 계급운동의 원조로 삼았다. 조선 최초의 노동단체인 조선

1. 원종린, 「勞農露國의 終局, 볼셰비키와 무정부주의」, 『개벽』45, 1924.3.1, 61쪽.

2. 3단계의 1단계는 다양한 사회주의사상이 수용되는 가운데 민족해방운동과 관련하여 맑스주의가 급속히 주류적인 위치로 자리하는 단계, 2단계는 다양한 사회주의 사상이 급속히 맑스주의로 통일화되면서 공산주의 그룹들 사이에 맑스주의 인식의 편차를 둘러싸고 계속적인 논쟁이 전개되는 단계, 3단계는 맑스주의 인식이 심화되면서 레닌주의를 수용하는 단계를 말한다. 박종린, 「일제하 사회주의사상의 수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참조.

노동공제회, 최초의 사회운동단체인 조선청년회연합회 결성도 천도교 조직이 뿌리가 되었고, 조선공산당, 6.10만세, 신간회, 여성근우회 등 다양한 사회운동에 사회주의와 천도교가 결합되었다. 또한 천도교는 아나키즘, 맑시즘, 볼셰비즘을 수용하면서도 동학에 바탕한 조선적 사회주의를 주창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나키즘, 볼셰비즘, 천도교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1920년대 사회주의 수용에서 형성된 사상지형과 동북아시아 연대라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조선의 사회주의 수용에서 아나코-코뮤니즘

1. 크로포트킨의 아나코-코뮤니즘

크로포트킨의 혁명이론은 ‘아나코 코뮌주의’로 지칭된다. 크로포트킨은 코뮌주의와 자유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파악했다. 그는 『빵의 정복』에서 “아나키는 코뮌주의로 통하며, 코뮌주의는 아나키로 통한다고 했고, 양자 모두 평등 추구에 대한 표현”³이라 했다. 아나키즘과 코뮌주의가 상호보완이 되었을 때 자유와 평등이 각기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크로포트킨은 바쿠닌처럼 코뮌주의를 자유의 적으로 보지 않았다. 인류 역사상 공산제가 실패한 것은 권력이 억지로 배당한 평등에 있고, 권력지배를 제거함으로써 코뮌주의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크로포트킨은 노동생산물의 분배기준에 대해 새로운 논리를 제기했다. 분배의 기준은 노동시간이나 노동의 질, 혹은 노동의 생산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라고 생각했다. 노동가치의 산정은 결국 상대적인 것이어서 그 자체로 불평등을 낳기 쉽고, 오히려 인간의 필요요구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그 유명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취한다.”는 슬로건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크로포트킨은 사람들의 욕구를 분배 기준으로 삼으면 사회질서가 엉망

3. 표트르 알레세예비치 크로포트킨, 『빵의 정복』, 이상률 역, 이책, 2016, 47쪽.

이 될 것이라는 반론에 “인간은 본래 필요한 것 이상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개인의 필요한 절대량은 대체로 정해져 있다.”고 반박했다. 인간이 필요한 것 이상을 바라는 것은 오직 물자가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을 때이고, 물건이 풍부해지면 저절로 코뮌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생산체제의 재편성 원칙으로 자급자족의 수공업제도를 제안하였다.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를 통해 ‘다양한 욕구의 최대 만족’을 제창한 것이다. 애덤 스미스에서 마르크스에 이르는 지금까지의 경제학이 부의 생산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그는 인간의 욕망을 ‘최소한의 노동으로 충족시키는 방법’을 탐구하는 과학을 주장했다.⁴ 이 주장은 매우 선진적인 것이었다. 이는 임금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코뮌주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였다.

크로포트킨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선도성을 자각하는 것이 인류 진보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 생각했다.⁵ 그는 ①모든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상을 전파했고, ②도래할 사회혁명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과 개념을 심화확대하며, ③이상과 원칙을 지도자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대중이 결정함으로써 자신의 것으로 만들 것을 강조했다. 또한 ④새롭고 평등한 사회의 건설자로서 노동자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시대의 요청에 부응할 것을 제기했다. 여기서 새롭고 평등한 사회란 다양한 목적을 가진 조합들의 연합으로 구성될 것이라 그는 생각했다. 농업조합, 공업조합, 지식인조합, 예술인조합 등의 노동조합과 주택, 가스, 식량, 위생시설 등을 제공하는 소비를 위한 자치단체, 그리고 그 위로 자치단체와 노동조합의 연합체가 형성되고 그 위로는 더 광범위한 지역연합과 卍연합이 형성될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경제적, 지적, 예술적, 도덕적 만족을 얻기 위해 예전처럼 영토적 경계에 제한받지 않고 서로 협력할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중앙에서 관장하는 기구가 없이도 철도나 우편체제처럼 자유로운 협력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⁶

새로운 사회는 자유, 평등, 행복한 사회로서 노동자의 노동과 독창적인 지식

4. 크로포트킨, 『크로포트킨 자서전』, 김유근 역, 우물이 있는 집, 2003, 627쪽.

5. 앞의 책, 466쪽.

6. 앞의 책, 486쪽.

및 능력이 자유롭게 발휘될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회는 모든 인간에게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쓰일 것이었다. 흔히 사람들은 산업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적 소유가 필요하고 인간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임금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소유의 방식은 개인의 자아를 희생시키는 것이고 임금노동은 노동의 신성과 창조를 막는 임금노예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크로포트킨은 ‘현존 국가의 틀 안에서 정권을 획득한다.’는 마르크스주의자들에 반대했다.

2. 상호부조론의 아나키즘 수용과 조선노동공제회

공식적으로 조선 사회에 아나키즘이 소개된 것은 1920년 『동아일보』와 잡지 『공제』, 『아성』, 그리고 1922년 『신생활』을 통해서이다.⁷ 동아일보는 1920년 5월 크로포트킨의 「청년에게 고함」이라는 글을 번역하여 게재했고⁸, 1921년에는 「최근에 서거한 세계적 대사상가 魯國 크로포트킨 공」을 게재했다.⁹ 또한 6회에 걸쳐 크로포트킨의 「선구자의 하소연」을 연재되었다. 1928년에는 「예슬 가로서의 크로포트킨」을 5회에 걸쳐 연재하였다.

1921년 『공제』 7호와 8호에서는 크로포트킨의 「청년에게 고함」을 「청년에게 訴함」으로 번역·연재하였다.¹⁰ 잡지 『아성』 3호에는 윤자영이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 연구」를 번역하여 소개했고¹¹, 이성태는 잡지 『신생활』에 크로포트킨의 「청년에게 고함」을 게재했으나 전문 삭제 당하였다. 그는 다시 『신생활』 7호에 「크로포트킨 학설연구」를 발표하여 자신이 이해한 크로포트킨의 사상을 소개하였다.¹² 그리고 「愛他是 愛己의 遠慮」라는 글을 통해서 우주 만유

7. 크로포트킨이 한국에 수용된 것은 중국과 일본 양쪽으로부터 수용된 것인데 일본 오스키 사카에(大杉榮)의 크로포트킨 전집, 혹은 중국의 李石曾 등 청년 아나키스트와의 교류는 신채호, 유자명, 박열 등과 같은 한인 독립운동가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국내에 크로포트킨이 소개된 것은 일본 유학생들에 의해 서였다.(조세현, 「동아시아 3국(한중일)에서 크로포트킨 사상의 수용」, 『중국사연구』39, 2005, 271쪽)

8. 크로포트킨, 「청년에게 고함」, 김명진 역, 『동아일보』, 1920.5.22.

9. 「최근에 서거한 세계적 대사상가 魯國 크로포트킨 공」, 『동아일보』, 1921.4.1.

10. 無我生譯, 「青年에게 訴함」, 『공제』7, 1921.4.17.

11. 윤자영, 「상호부조론」, 『아성』3, 1921.7. -이는 일본 사회주의자 大杉榮의 「크로포트킨 연구」를 번역한 것이다.

12. 이성태, 「크로포트킨학설연구」, 『신생활』7, 1922.7. 37쪽.

가 상호 연결에 의하여 일어남이 근대 과학이 증명하는 바와 하여 “愛他가 곧 愛己가 되는 상호부조(mutual aid)”를 강조했다.¹³ 또한 크로포트킨의 사상은 상호부조의 진화론뿐만 아니라 구질서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파괴주의, 무정부주의, 도덕과 예술의 완성 등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되었다.¹⁴ 이 중에서도 널리 선전되었던 것이 파괴와 상호부조론이다. 특히 상호부조론은 동양의 정서와 맞는 부분이 많아서 초기에 큰 호응을 얻었다.

『공제』를 발간한 조선노동공제회(1920)는 초기 아나키즘의 수용과 운동의 전형을 보여주는 최초의 조선노동단체였다.¹⁵ 처음에는 조선노동연구회라는 단체로 시작했고, 창립 당시 조선노동공제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조선노동공제회는 아나키즘에 입각해 노동자의 각성과 노동문제의 해결운동을 목표로 생겨난 것이었고, 노동의 신성(神聖)과 상호부조(相互扶助)의 노동문화를 건설하고자 했다. 본회의 설립 취지는 “노동은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선한 본성”으로서 “애정으로써 상호부조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의 존영을 기함”이었다.¹⁶ 이는 곧 우승열패,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에서 비롯되는 특권계급(정복민족)과 노예계급(피정복민)의 계급투쟁을 인식하여 계급이 없는 사회를 지향한 것이었다. ‘인권의 자유평등과 민족차별의 철폐, 식민지교육의 지양과 대중문화의 발전, 노동자의 기술양성과 직업소개, 각종 노

13. 反求室主人, 「愛他는 愛己의 遠慮」, 『신생활』8, 1922, 30~34쪽. 이성태는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을 소개하여 한 종속과 다른 종속의 생존 경쟁에서 한 종속의 생존을 완전케 하는 것은 단결의 힘인 사회생활과 상호부조에 있다고 하였다. 사회생활과 상호부조가 생존경쟁의 최상의 무기이고, 적은 행복으로부터 최대의 행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인류의 진화법칙이라고 하였다.

14. 중국의 대표적인 아나키스트 師復은 크로포트킨 학설을 3가지로 정의 내렸다. 첫째, 경제상의 자유로 일체의 자본 세력의 속박을 벗어나 공동 노동의 생산물을 자유롭게 취하는 것이다. 둘째, 정치상의 자유로 정부의 속박에서 벗어나 각종 노동조합과 단체를 자유롭게 조직하는 것이다(무정부주의). 셋째, 도덕상의 자유로 종교의 도덕 소각에서 벗어나 의무와 제재가 없는 자유에 도달하고 사회생활을 호조의 정신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師復, 「克魯泡特金無政府共產主義之要領」, 『民聲』17, 1914. 7. 4; 김미지, 「동아시아와 식민지 조선에서 크로포트킨 번역의 경로들과 상호참조 양상 고찰」, 『비교문화연구』43,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6, 171~206쪽, 재인용.

15. 조선노동공제회(朝鮮勞動共濟會)는 1920년 2월 7일 조직된 조선노동문제연구회(朝鮮勞動問題研究會)를 모태로 하여, 그 해 4월 11일 박중화(朴重華), 박이규(朴珥圭)를 회장 총간사로 하고 고순흙(高順欽), 윤덕병(尹德炳), 신백우(申伯雨), 김두희(金斗熙: 金若水), 정태신(鄭泰信: 鄭又影), 차금봉(車今奉)-김명식(金明植)-장덕수(張德秀)-정운해(鄭雲海) 등을 중심으로 창립되었다.

16. 「조선노동공제회주지」, 『共濟』1, 1920.9, 167쪽.

에 해방과 상호부조를 기함'을 취지로 하여 노동문화운동에 뛰어든 것이다. 그리고 그 주된 핵심은 “노동의 이상적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전제하면서도 조선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노동자 교육·경제·위생’을 우선한 것이었다.¹⁷

당시 창립행사에서는 메이데이 기념 강연회를 열었고, 김명식, 정태신, 염상섭이 「扶助와 경쟁」, 「계급사회의 모순」, 「노동조합과 세계의 현황」을 주제로 연설했다. 용산 철도공장 노동자 김길인은 연사로 나와 노동자의 불행한 처지에 대해 호소할 만큼 노동자의 의식도 성장하기 시작했다. 9월에는 기관지 『공제』¹⁸를 창간하여 사회주의를 선전하였고, 우리나라 최초로 소비조합을 조직하여 운영했으며 10월에는 조선노동공제회교육부 주최로 노동야학을 개설했다. 이는 초등수준으로서 수시입학제로 운영했던 것인데, 경성에서는 중앙노동강습소, 용산노동강습소, 동대문노동강습소 3개소를 운영했다.¹⁹ 조선노동공제회는 공제(共濟)라는 제목의 의미가 그러한 것처럼 상호부조에 입각한 노동문화건설과 노동의 신성을 도모했다.

유진희 또한 노동자의 문명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약자를 돕고, 임은노예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날에서 비롯될 것”이라 하였다.²⁰ 노동은 신성한 까닭에 금전이나 상품으로 교환되는 것에서 해방되어야 하고, 자유롭게 공장에 나가서 취미 있는 노동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생명의 창조, 창조의 환희, 즐거운 노동의 영위로서 그 신성미를 알아야 할 것이었다.²¹ 특히 그는 「노동운동의 사회주의적 고찰」에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소비한다.”²²는 크로포트킨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를 노동운동의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김한은 마르크스즘에 입각할 때, 계급운동의 주체는 노동자여야 하지만 조선의 경우는 임금 노동자가 희소하고 농민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현

17. 文國柱 編著, 『朝鮮社會運動史事典』, 고려서림, 1991, 345~346쪽.

18. 『공제』 필진들 가운데 김명식, 유진희(兪鎭熙), 장덕수(張德秀), 변희용(卞熙容), 나경석(羅景錫), 정태신(鄭泰信), 김약수(金若水), 고순흠(高順欽) 등은 1920년 6월 서울에서 ‘사회혁명당(상해파)’를 조직한 인물들이거나 흑도회에 가입한 아나키스트였다.

19. 「강습생모집광고」, 『공제』2, 1920.10.

20. 無我生(유진희), 「노동자의 문명은 如斯하다」, 『공제』1, 1920.9, 35~36쪽.

21. 齋觀, 「전국노동자제군에게 檄노을 送하노라」, 『공제』1, 1920.9, 40~42쪽.

22. 유진희, 「노동운동의 사회주의적 고찰」, 『공제』2, 1920.10, 19쪽.

실이므로 운동주체는 임금 노동자를 포함한 총체적 무산자가 됨을 주장하였다. 여기서 노동자는 육체노동자만이 아니라 무산자를 총칭한 것으로서 전위 세력은 노농청년총동맹이 되는 것이다.

노동자 제군이라 함은 근육노동자 제군을 주치하여 말한 것이다 만은 우리의 형세를 따라서 일반 무산자의 계급, 더 널리 말하자면 그 어떠한 특수계급을 제외한 외의 전체를 일괄한 의미에서 말한 줄로 제군은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²³

조선노동공제회 주역들은 조선청년회연합회 결성에도 가담했는데, 당시 청년회에서도 아나키즘을 학습했다. 대구청년회에서는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이라는 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가 대구경찰서로부터 금지 당했지만²⁴, 지속적으로 노동자·농민들을 조직화하여 1922년에는 80여개의 노동단체가 결성되었다. 또한 김명식이 당시 주간으로 있었던 『동아일보』는 세계 아나키즘운동에서 유행했던 에스페란토 보급에 힘썼다. 1920년 6월 24일자부터 「청년제군에게 에스페란토를 권함」이라는 기사를 시작으로 에스페란토협회 총회, 에스페란토 강습회, 에스페란토 연구동지회, 에스페란토 강좌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고, 잡지 『개벽』, 『별건곤』 등에도 에스페란토가 소개되었다.

III. 불세비즘과 아나키즘의 결합

1. 아나키스트의 불세비즘 수용

중국 사회운동에서도 아나키즘과 불세비즘은 양대 세력을 이루었고, 중국 공산당이 창립되기 전 아나키즘이 초보적 맑스-레닌주의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이미 정설로 되어 있다.²⁵ 리다자오의 초기 사상에도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권력모순도 점진적 발전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 그는 생각했다. 또한 국가권력은 어느 한

23. 霽觀, 「전국노동자제군에게 檄노을 送하노라」, 『공제』1, 1920.9, 40쪽.

24. “좌담회를 금지, 공산주의 선전이라고”, 『시대일보』, 1924.10.13, 1면.

25. 高津正道, 「支那に於ける無政府主義운동」, 『勞動運動』8, 1921.4.3.

시점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부단한 투쟁을 통해 폐기된다고 그는 생각했다.

아나키즘은 당시 볼셰비즘과 유사한 점이 많았다. 공산주의, 사유재산제도 폐지, 생산수단의 공유, 사람의 개성과 자유회복, 계급해방 등이 그러하다. 물론 볼셰비즘은 투쟁방식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과도기적으로 주장한다는 점에서 아나키즘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실제 공산주의운동에서 아나키스트와 볼셰비키는 결합을 이루었다. 아나키스트들 중에는 소련 공산군에 복무하면서 레닌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한 인물도 있었으며 러시아혁명 자체가 아나-볼 간의 합작품이었다.²⁶

중국은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아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사회주의로 전환하거나 크로포트킨에 매료되었다. 소련 정부는 러시아 황제가 가지고 있던 중국에서의 특권과 이익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레닌은 서양이 중국의 고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탄하였고, 자본주의의 멸망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혁명에서 아시아에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세계의 문제는 단지 서양 국가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대다수의 유럽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견해를 반박했다.²⁷ 또한 레닌의 피압박민족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과 그의 『제국주의 이론』은 중국의 사회혁명에 영향을 주었다.

조선도 1919년 러시아 볼셰비즘을 중심으로 제3인터내셔널 국제공산당이 조직되었을 때 평의권(評議權)을 가진 대표자로서 참가했다. 당시 레닌은 「공산당선언」을 낭독한 후 72년간 무산계급이 치른 악전고투를 말하면서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리고 우리의 임무는 각국노동계급의 경험을 수집하고, 약소민족에 대한 구체책을 논하는 것에 있다 하였다. 또한 의회적 민주정치에 대한 공산당의 입장을 논급하면서 종래의 의회는 순전히 유산계급의 기구임에 반해 향후 소비에트는 무산계급의 기구가 될 것임을 말했다. 그리고 제3인터내셔널은 신사회주의적 질서를 건설하는 것이 임무로서 민중을 대표하여 혁명활동에

26. 조세현, 『동아시아 아나키스트의 국제 교류와 연대』, 서울: 창비, 2010, 132쪽.

27. 이매뉴얼 C.Y. 쉬, 『근·현대 중국사(下)』, 조윤수·서정희 역, 까치, 2013, 636~637쪽.

임하는 자라 하였다.²⁸

조선에 문건상으로 레닌이 처음 소개된 것은 1923년 5월에 발간된 잡지 『개벽』에서였다. 이는 러시아 신문에 게재된 『노동의 창조』라는 글인데, 자본주의가 부여하는 경제자유의 기만을 끊고, 임금 노동의 습관을 버리며 진정한 노동의 자유와 새 사회를 건설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모든 이는 한 사람을 위하여! 한 사람은 모든 이를 위하여!” 라는 코뮤니즘적 제도와 노동 규율을 붙여 넣자 하였다.²⁹ 조선 사회주의자들에게서도 불세비즘과 아나키즘은 혼재되었다. 불세비즘을 이해할 때도 아나키즘에 바탕 하여 맥락을 재구성해나갔다. 레닌은 소비에트 정치를 행하여 노동자계급으로 국가의 주권자가 되게 하는 동시에 부르주아식 국가의 대의제를 폐지했고, “각 사람은 자기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는 원칙에 의해 공산주의 정책을 실행했다고 소개되었다.

혁명성취후의 그는 곳 종래의 持論이던 (1)쏘베트式 정치를 행하여 全然 노동자계급으로 국가의 주권자가 되게 하는 동시에 보통 搾조아식 국가의 대의제를 폐지해스며 (2)「각 사람은 자기의 재능에 쫓아서 일하고 자기의 필요에 쫓아서 분배를 맞는다」는 원칙에 의한 공산주의의 정책을 실행하여 사회주의의 그 尙大 복잡한 이론을 온전히 조직에 의해서 실현하기에 全力했다.³⁰

“각 사람은 자기의 재능에 쫓아서 일하고 자기의 필요에 쫓아서 분배를 받는다.”는 말은 레닌의 주장이 아니라 크로포트킨의 표어이다. 하지만 사회주의 수용에서 아나키즘이 레닌의 의도와 정책으로 이해된 측면도 있었고, 마르크시즘과 불세비즘이 동일시되는 경향도 있었다. 그러나 점차 불세비즘에 방점을 둔 것은 조선의 상황에 레닌주의가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선은 생산력이 발달하지 못했고, 계급투쟁의 주체로 나서야 할 노동자도 소수였다. 그리고 90%를 차지하는 절대 다수가 무산자 농민이었다. 맑스 이론은 자본주의가 발달된 서구의 경제상황에서 얻어낸 실증과 이론이지 식민지 지배

28. 소춘 抄, 「세계사회주의운동의 사적 기술」, 『개벽』46, 1924.4.1, 54~56쪽.

29. 니콜라이 레닌, 「노동의 창조」, 『개벽』, 1923.5.1, 37~38쪽.

30. 「레닌은 죽었습니다」, 『개벽』44, 1924.2.1, 22~27쪽.

를 받고 있는 조선처럼 사회 생산력이 질식을 당하는 경제관계에서 입론된 것이 아니었다.³¹ 조선 사회주의자들은 생산관계가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상태에서 맑스의 이론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혁명을 성공시킨 러시아 볼셰비즘에 주목했고, 피압박민족을 지원하는 코민테른과 연동되었다. 그리고 「공산당 선언」에서 말한 “만국노동자여 단결하라!”는 “조선 농민은 각성하여 단결하라!”로 바뀌어 주장되었다.³² 물론 마르크스의 계급투쟁론과 유물사관³³, 잉여가치론 등을 기본적으로 학습했지만 레닌주의에 입각한 계급투쟁노선을 수용해 나갔다.

일반적으로 계급투쟁의 방법은 사상적 투쟁, 정치적 투쟁, 경제적 투쟁으로 발현했는데, 경제적으로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그 단체의 힘으로 자본가에게 대항하는 형세를 취하고, 정치적으로는 노동계급이 정당을 만들어 사회개조운동을 통하여 부르주아와 투쟁하는 것이다. 또한 조합운동과 정당운동만 가지고서는 전투력이 부족하므로 사상으로 싸움을 하는 것이었다.³⁴

레닌에 의해 해석된 마르크스 사상의 영향 속에서 노동운동으로 확산된 것은 1920년대라 할 수 있고, 조선의 사회주의자들 역시 레닌의 『제국주의론(1917)』을 탐독하였다. 레닌은 ‘생산의 집적과 독점체제, 은행과 산업의 유착과 합병, 금융자본의 발생, 과잉자본의 국외수출과 제국주의의 침략과 착취’라는 제국주의 경제이해와 더불어 그것이 식민지정책과 전쟁으로 규정된다는 것, 그리고 각 나라의 개별경제가 제국주의 세계경제라는 하나의 사슬로 묶이게

31. O民, 「사상의 귀추와 운동의 방향」, 『개벽』45, 1924.3.1, 46쪽.

32. 위의 글, 47~48쪽.

33. 당시 유물사관은 6가지로 정리되었다. ① 사람의 의식이 사람의 생활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회생활이 사람의 의식을 결정한다. ②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생산관계가 변화하여 사회혁명의 시대가 도래한다. 즉 경제적 기초가 변동함에 따라 상부구조도 서서히 혹은 급격히 혁명된다. ③ 경제적 혁명은 사회적 생산력과 생산관계간에 현존하는 모순으로써 설명하여야 한다. ④ 한 사회의 조직은 그 조직 내에 포함된 모든 생산력이 충분히 발달한 후가 아니면 결코 진보되지 않는다. ⑤ 고대 노예제도, 중세 봉건제도, 현대 자본제도는 경제적 진화의 3대 단계인데, 현대의 자본가적 생산관계가 최후의 계급투쟁, 최후의 계급적 알력이다. ⑥ 자본가적 사회의 내부에서 발전한 생산력은 동시에 알력을 해소시킬 물질적 조건을 만들므로 이 자본가적 사회구성과 함께 인류사회의 역사는 그 종결을 고하고 진정한 문명시대, 대공산제도의 사회로 들어간다.(사카이 도시히코, 「사회주의학설 대요4: 유물사관의 요령기」, 『개벽』43, 1924.1.1, 47~56쪽)

34. 사카이 도시히코, 「사회주의학설 대요2: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입지」, 『개벽』41, 1923.11, 43쪽.

뒀을 논증했다. 특히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제국주의와 민족적 억압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약소국가들을 병합하고 억압하여 저항을 격화시킨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³⁵ 그리고 약소민족을 탄압하는 서구 제국주의를 비판함과 동시에 피압박민족의 연대를 핵심으로 떠오르게 했다.³⁶

동북아에서 아나키즘과 불세비즘은 상호 결합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반목하기도 했다. 조선의 경우 고순흙은 신백우 등이 상해 고려공산당³⁷과 연락하여 다수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비난하면서 이들을 축출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조선노동공제회를 탈퇴한 뒤, 1922년 7월 11일 윤덕병과 이수영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조선노동공제회 간판과 서류를 불태웠다.³⁸ 고순흙은 조선의 아나키스트로 중국에서도 활동했고, 신백우는 레닌주의자로서 잡지 『공제』 주관을 맡았으며 러시아 공산당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활동했다.

2. 신생활사(新生活社)와 아나키즘-불세비즘

조선노동공제회가 아나키즘에 입각하여 노동자의 주체적 자각과 교육/문화운동에 주력했다면 신생활사는 아나키즘을 소개하면서도 불세비즘에 방점을 두어 노동자 계급투쟁에 주력했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신생활사³⁹는 김윤식 사회장 문제로 상해파와 분리되어 나온 김명식, 유진희, 정백, 신일용 등이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이들은 조선청년회연합회 결성을 주도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조선노동공제회 기관지 『공제』의 주된 필진을 이룬 인물들이기도 하지만

35. VI. 레닌, 『제국주의론』, 남상일 역, 백산서당, 1988, 158~159쪽.

36. VI. 레닌, 위의 책, 159~160쪽.

37. 조선 사회주의 운동은 이동휘가 1918년 5월 하바로프스크에서 결성한 한인사회당에서 기원한다. 그리고 1920년 1월 22일 이르쿠츠크에서 당시 러시아 불세비키당의 한인지부인 이르쿠츠크공산당 고려부(대표 김철훈)가 조직되었다. 이동휘는 레닌의 힘을 빌려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첫 포석으로서 1920년 봄 상해에서 공산주의자 그룹을 결성했는데, 다음 해 이를 고려공산당으로 개칭했다. 세칭 상해파 고려공산당이라 부르기도 한다.

38. 『동아일보』, 1922.7.13.

39. 신생활사는 1922년 1월 창립되었다. 3월부터 신생활 창간호를 냈으며 10호부터 주간으로 변경했다. 창간호에 밝힌 신생활의 주제는 신생활 제창, 평민문화 건설 제창, 자유사상 고취에 있었다. (『신생활 주제』, 『신생활』1, 1922, 69쪽) 또한 “신생활은 자유와 평등의 신생활을 영위함에서 얻는 것”이라 하였고, 신생활을 제창함은 “오직 개조와 혁신이라는 인류 공통표어의 세계대세에 순응코자 함”이라 하였다. (『신생활사 창립』, 『동아일보』, 1922.1.19)

『신생활』에서는 아나코-볼셰비즘을 주도적으로 소개했다. 기존 연구는 신생활사가 다양한 사회주의 사상 가운데 맑스주의를 정파(正派)라고 선언했다고 말하고 여기에는 신일용의 역할이 컸다고 보았다.⁴⁰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맑스주의가 아니라 아나코-볼셰비즘에 입각한 정파 선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민중을 착취하는 모든 질서의 파괴와 계급투쟁사관을 결합시킨 것으로서 여기에는 일본의 아나키스트이자 볼셰비즘에 영향을 받은 야마가와 히토시(山川均)가 매개적 역할을 했다. 이성태는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1902)』을 신생활에 번역하여 게재하였는데, 이 역시 야마가와와 글을 번역한 것이었다.

생산의 과잉이 생기는데 인류의 9할이나 되는 노동자는 기아의 수라가 되는 사유재산제도의 질서, 살육과 투쟁을 일삼은 현대사회의 약탈의 조건이 되는 교육의 질서, 소수자를 위하여 민중을 착취하는 국가제도의 질서, 이 모든 질서를 파괴하여 만인을 위한 민족과 행복과 평화와 진보를 위하여 새로운 자유의 미래를 건설하려 함이외다. 진실로 새로운 창조! 이것이 그네가 부르짖는 질서외다.⁴¹

정백 또한 야마가와가 집필한 「무산계급의 역사적 사명」이란 글을 번역하여 계급투쟁과 인간의 능동성에 대해 기술했다. 신일용 역시 야마가와와 「노동운동사」를 소개 한 바 있고, 「계급투쟁설은 인류 사회진화의 한 법칙이자 무산계급의 신문화 창조」⁴²라 했다. 계급투쟁은 자본주의를 붕괴시키고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에 도달할 것이며,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일체의 계급을 폐지하고 자유와 평등의 신사회로 가는 「과도기의 성격」을 갖는다 하였다. 즉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제도를 혁파하고 공유재산제도로 변혁시키는데 이를 국가가 과도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사회주의의 첫 번째 이상이라는 것이다.⁴³ 신일용 역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나의 과도기로 설정하여 아나키즘과의 결합을 시도했다. 한 인물, 한 단체 안에서 아나키즘과 볼셰비즘은 공존했고 양자는 서로 혼합되었다. 실제 당시 청년들은 크로포트킨과 레닌의 저서를 함께 학습했고 양 저서

40. 박종린, 「1920년대 초 사회주의사상의 수용과 『신생활』」, 『사립』49, 2014, 94쪽.

41. 이성태, 「크로포트킨학설연구」, 『신생활』7, 1922, 30쪽.

42. 신일용, 「맑스사상의 연구: 계급투쟁설」, 『신생활』6, 1922, 35쪽.

43. 신일용, 「사회주의의 이상」, 『신생활』9, 1922, 22쪽; 박종린, 앞의 글, 97쪽.

모두를 공산주의 선전 책자로 활용했다. 함경남도 흥원군의 프롤레타리아 청년동맹회원들은 크로포트킨과 레닌의 저서로 회원에게 공산주의를 선전하다가 검거된 바 있듯이⁴⁴ 조선에서 크로포트킨과 레닌주의는 상호 결합되었다.

박종린은 『신생활』의 주류를 마르크스로 잡고, 그 특징을 ①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대한 비판, ②자본주의 체제 비판, ③계급투쟁의 강조를 꼽은 바 있다.⁴⁵ 이는 아나키즘과 볼셰비즘 양자 모두에 해당한다. 양자 모두 자본주의 체제 비판, 사회개조, 계급해방, 공산주의를 표방했기 때문에 상호 결합되었고, 러시아 신문화운동과 혁명을 선전했다. 신생활사가 지향했던 신문화는 노동자유문화로서 러시아 신문화운동에서부터 중국의 신문화운동으로 이어지는 사회개조의 맥락에서 수용된 것이었다. 당시 김명식은 “러시아에서 먼저 착수한 신문화운동이 가속도로 세계에 전파”될 것을 전망하면서 조선의 신문화 건설도 멀지 않을 것이라 했다.⁴⁶

또한 ‘신생활 필화사건’도 아나키즘과 볼셰비즘의 결합을 보여준다. 이는 조선 최초의 사회주의 재판사건이다. 이 사건은 『신생활』 11호(1922년 11월)를 러시아혁명 5주년 기념호로 발행한 것이 빌미가 된 것인데, 당시 총독부는 잡지사의 사원들뿐만 아니라 노동대회 간부들까지 검거하여 취조를 했다. 검거된 사람은 신생활사 박희도⁴⁷, 김명식⁴⁸이고, 이성태, 정백도 소환되었다.⁴⁹ 또한 노동대회가 신생활사와 연계되었다 하여⁵⁰ 노동대회 간부 김승규도 검거되고,

44. 『高等警察關係年表』, 1926.9.

45. 박종린, 「1920년대 초 사회주의사상의 수용과 『新生活』」, 『사림』49, 2014, 84~99쪽.

46. 김명식, 「구문화와 신문화」, 『신생활』2, 1922, 6쪽.

47. 박희도(1889~1952)는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으로 1921년 12월 출옥한 후 1922년 1월 김명식 등이 주도한 신생활사 창립에 참여하였다.

48. 김명식(1890~1943, 松山/솔피)은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정치경제과를 졸업했고, 일본 유학 당시 조선유학생학우회의 간사 부장을 맡아 1919년 2·8독립선언에 참여하였다. 귀국 후 『동아일보』 창간에 협력하고 논설위원을 역임했다. 1922년 1월 박희도(朴熙道)에게 출판사를 설립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신생활사(新生活社)가 창립하자, 이사 겸 주필에 취임하여, 월간지 『신생활』을 발행하였다. 또한, 신일용(辛日鎔)-유진희(兪鎭熙) 등을 기자로 추천하기도 하였다. 1920년 6월 28일 경향 각지에서 조직되고 있던 청년회의 연합동일체를 조직하기 위해, 장덕수(張德秀)-오상근(吳祥根)-장도빈(張道斌)-박일병(朴一秉)-안화(安廓) 등 50여 명과 함께 조선청년회연합기성회를 발족시켰다.

49. 『兩雜誌 事件의 內容』, 『동아일보』, 1922.12.5, 3면.

50. 1922년 이와 때를 맞추어 일본 大阪에서 조선노동자대회가 열렸다. 20여 노동단체의 노동자 12000명

이항발도 나주에서 잡혔다.⁵¹ 주필 김명식, 기자 신일용, 유진희⁵² 모두 신문지법 위반(대정8년 제령 제7호)으로 기소되었다. 인쇄인 노기정과 노동대회 간부 김승규는 기소유어로 풀려났고, 이항발은 「자유노동조합취지서」를 인쇄배부한 사실로 역시 기소되었다.⁵³ 기소의 핵심은 ‘러시아 혁명의 예찬’, ‘러시아 자금 수수설’, ‘자유노동대회와의 연계’, ‘자유노동조합취지문 배포’와 유진희의 「민족운동과 무산계급의 전술」 게재에 있었다. 그리고 재판의 판결 핵심은 러시아 공산당 및 노동대회와의 관계였다. 박희도는 당시 가택수색 시 국제공산당당선언서, 국제공산당헌법과 가입조례, 무산당 청년회 제2차 대표회의 문건, 공산당독본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⁵⁴ 그는 소련 공산주의를 선전한 것에 대해 집중 취조를 당했다.

신생활 필화사건은 아나코-볼셰비키들의 노동운동과 러시아 공산당과의 깊은 관련을 보여준 사건인데, 특히 러시아 혁명의 예찬, 자유노동과 노동조합결성 등은 아나키즘과 볼셰비즘의 결합을 보여준다. 당시 동아일보는 이 사건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주의 상 충돌”⁵⁵로 규정했다. 신생활사와 관련되었던 이혁로는 1930년대 제4차 공산당 재건운동(M.L.당)을 하다가 검거되어 고문으로 사망했던 것처럼⁵⁶ 신생활사 관련 인물들 중에 공산당 재건을 위해 노력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⁵⁷

과 교토, 고베 등지의 노동자가 연합하여 도합 2만 여명의 조선인 노동단체를 조직하고 조선인의 권리와 지위를 옹호하고자 하였다(“조선인 노동단체”, 『동아일보』, 1922.12.05, 3면).

51. “동대회의 간부”, 『동아일보』, 1922.11.28, 3면.

52. 유진희(1893~1949)는 1920년 4월 조선노동공제회 창립에 참여하고 편집부를 맡았다. 그 해 가을 사회혁명당 결성에도 참여하였다. 10월에 나온 『공제』 2호에 「노동운동의 사회적 고찰」을 발표하면서 노동 문제는 사회주의와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주-소작인 관계를 노동자-자본가 관계로 등치시켜 소작운동을 농촌의 노동운동이라고 정의하였다. 1921년 5월 ‘고려공산당(상해파) 대표자회의’에 국내 대표의 한 사람으로 참가, 내지간부로 선임되고, 기관지부를 담당하였다.

53. “신생활사건기소”, 『동아일보』, 1922.12.13, 3면.

54. “조선 초유의 사회주의 재판, 신생활 사건 제1회 공판”, 『동아일보』, 1922.12.27, 3면.

55. “신생활의 발행금지, 주의상 충돌”, 『동아일보』, 1923.1.11, 1면.

56. “4차共黨관련 이혁로昨日永眠”, 『중외일보』, 1930.9.24, 2면.

57. 아나키스트 단체 흑도회에서 갈라져 나간 북성회도 이와 유사한 흐름을 보여준다. 1921년 12월 흑도회는 박열파와 김약수파로 갈라져 흑우회와 북성회로 분할 개편되었다. 1923년 동경에 본부를 둔 북성회는 국내 단체를 장악하기 위해 조선 순회강연을 단행했다. 당시 북성회의 선전 강령은 한국과 일본 프롤레타리아의 결합을 굳게 하고, 제일조선인노동자의 단일조합을 창설하는 것이었다. 김약수-정태

3. 아나코-볼셰비즘과 동북아시아

동북아 사회주의 운동사에서 아나키스트와 볼셰비키의 결합은 공통적인 현상이다. 크로포트킨도 초기에 레닌 혁명을 보면서 볼셰비키와 연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중국의 아나키스트들도 레닌주의는 물론 러시아 혁명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중국의 아나키스트들이 레닌의 소비에트 정부와 볼셰비즘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함께 결합했던 것은 소비에트 정부를 이상적 사회로 가는 과도기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러시아의 사회혁명에 대해 무산계급이 전쟁에 대응한 제일성(第一聲)이자 만국혁명의 선구라고 생각한다. ...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는 본래 혈연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우리들은 러시아의 새로운 조직이 무정부혁명의 선구라고 믿는다. 새 조직이 빨리 현 단계를 넘어 우리의 이상에 도달하길 희망한다.⁵⁸

이러한 관점은 조선에도 영향을 미쳤다. 코민테른 자체가 동북아시아 3국(한중일)에 사회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중국부, 조선부, 일본부 등 3개의 지부를 두고 활동을 펼쳐나갔고 이동휘의 한인사회당과 관계를 맺어 고려공산당을 조직하였다. 조선의 노동공제회나 조선청년회연합회, 신생활사 모두 한인사회당과 연계된 아나코-볼셰비키가 주도했다. 러시아 볼셰비키 정부 성립 초기, 러시아인 가운데는 아나키스트인 동시에 볼셰비키인 아나코-볼셰비키가 존재했다. 중국의 경우도 사회주의 운동 안에 아나키즘과 볼셰비즘이 혼재했다. 중국 사회에 볼셰비즘이 수용되기 전에 아나키즘 사상이 광범위하게 전파되었고, 초기 량치차오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주의자들인 쑨원, 천두슈, 리다자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정설로 되어 있다. 쑨원에게도 “인류가 호조

신-백무(白武)-김중범 등 북성회의 주류파는 국내에 신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일본 아나키스트 단체인 호민회(曉民會)의 高津正道, 자유법조단(自由法曹團)의 布施辰治, 그리고 北原龍雄 등과 함께 1923년 7월말 조선에 입국하여 순회 강연단을 결성했다. 布施辰治는 김약수의 통역으로 “무산계급운동의 정신”이라는 주제로 강연했고, “무산자의 해방운동은 필연의 이치”라 하였다. 북성회는 순회강연을 통해 노동운동의 지도자 육성과 한일 노동운동의 연계를 도모했다. 1924년 11월 북성회는 조선 내에 북풍회를 조직하여 국내 단체를 계통적으로 지휘하고자 코민테른의 승인을 받고자 노력했다.

58. 眞社譯, 『克魯泡特金的思想』, 天津眞社出版, 1920, 3쪽; 조세현, 앞의 글, 210쪽, 재인용.

를 원칙으로 한다.”는 상호부조론의 영향이 나타나고⁵⁹ 천두슈, 리다자오, 마오쩌둥 등의 글에서도 《호조론》의 영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1920년을 전후한 시기에 결성된 ‘사회주의자동맹’처럼 볼셰비즘의 중국 전파 과정에서 아나키스트와 초기 공산주의자들 간에 결합이 있었다는 것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⁶⁰ 이는 코민테른에서 중국에 파견한 보이틴스키의 목표와도 일치하는 것이었다.⁶¹ 코민테른 하부 조직의 하나인 청년 코민테른은 공산주의 청년 조직을 각 국에 만드는 것이 주요 임무였는데, 천두슈와 보이틴스키 등이 중심이 되어 중국에서도 사회주의청년단이 만들어졌다. 사회주의 청년단 역시 볼셰비키뿐만 아니라 아나키스트가 많았다. 『신청년』을 인쇄한 우신인쇄소는 사실상 아나키스트에 의해 운영되었지만 맑스주의 관련 서적뿐만 아니라 레닌의 공산당선언을 출판했다. 물론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개인의 자유 및 당의 기율 문제, 그리고 생산과 분배의 문제 등을 둘러싼 아나볼 논쟁과 분열도 빈번했다.

IV. 동학(천도교)의 사회주의 수용과 ‘사회연대의 정신’

1920년대 조선에 수용된 사회주의란 공산사회를 지향하는 신사상을 의미했다. 당시 아나키즘이나 볼셰비즘에 영향 받은 천도교 또한 사회주의 수용의 계보 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⁶² 천도교는 국내 최초로 『개벽』을 통해서 맑스주의 이론을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자본 군국주의(제국주의) 대 무산자/피압박민족의

59. 조세현, 「동아시아 3국(한중일)에서 크로포트킨 사상의 수용」, 『중국사연구』39, 2005, 246쪽.

60. 조세현, 「보이틴스키의 중국 방문과 사회주의자동맹: 중국공산당 창립 시기 아나키즘·볼셰비즘 합작과 분열」, 『중국사연구』36, 2005, 198~199쪽 참조.

61. 코민테른 극동부 담당 보이틴스키는 중국 국내 상황을 이해한 후 ①공산주의 소조 건립과 공산주의 정당 수립, ②지식인 조직을 통한 노동자와의 연계, ③각 혁명 과벌의 활동에 협조에서 아나키스트와 국민당을 포함할 것에 목표를 두었다(K.E. 舍維廖夫, 『中國共產黨成立史』, 『一大前後(三)』, 人民出版社, 1984, 155쪽; 조세현, 앞의 글, 231쪽, 재인용)

62. 1920년대 천도교 잡지 개벽사의 이돈화, 김기전, 이동곡 등은 동학에 기초한 계급의식과 동귀일체의 공산사회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천도교 사회주의라 말할 수 있다.(정혜정, 「1920년대 동북아시아의 사회주의 연동과 조선신문화운동: 천도교 잡지 『개벽』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34-2,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2019, 175~203쪽 참고)

대립투쟁이 곧 계급투쟁이자 민족해방운동임을 인식하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동곡, 이돈화, 김기전, 정규선 등이다. 이동곡은 개혁사 북경특파원으로서 ‘한 살림’의 공산사회를 지향했고, 이돈화는 동학혁명을 계급의식의 원천으로 삼았다. 김기전은 제국주의 세력에 대항할 절대세력은 “각국 각 민족 간의 무산대중의 양심을 통해서 발발하는 사회주의적 운동”이라 보았고, 조선도 “만국의 무산자여 단결하라”⁶³는 그 운동의 국제적 결연(結聯)에 연대할 것을 제기했다. 정규선 또한 인내천의 동학사상에 바탕하여 자기수양과 만민동포에 기초한 공산사회 건설을 지향했다. 본 연구에서는 정규선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정규선은 사회주의를 사회연대의 정신으로 표방했고, 자본 군국주의에 대항하여 만민동포주의의 공산사회로 나아가고자 했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제도가 존재하는 한 군국주의를 버릴 수가 없고, 군비는 정부의 중대사로서 이는 자기 나라의 인민을 보호하고자 함이 아니라 해외 자본이나 자산을 쟁취하고자 함에 있었다. 그러나 자본 군국주의가 기승을 부릴수록 민중과 민중 간에는 사회연대의 정신이 증진해 갈 것으로 갈파되었다.

資本制度가 存在할 동안에는 軍備는 政府의 重大 要務일 것이니 何故오 하면 人民을 保護하기 爲하여 必要한 것이 아니오, 海外에 在한 資本國의 資産이나 國家의 資産權을 擁護하기 爲함어든지 領地를 保護하며 또는 擴張하는 데에만 軍隊가 必要한 것인 故이다. 如斯히 어떠한 國家를 勿論하고 아즉 國家로는 容易히 軍國主義를 버리지 못하는 原始 狀態에 在함에 不拘하고 民衆과 民衆間에서는, 끈히지 아니하고 人類連帶, 同胞博愛의 精神이 增進해야간다.⁶⁴

현재 사회연대의 정신은 국제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 조선, 일본이 더욱 희박하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극심한 것이 일본이었다. “일본은 중국이나 조선과 같이他に 대한 독후(篤厚)한 공리주의나 관용적 희기심(犧棄心)이 극히 박약하다”⁶⁵는 것이다. 정규선이 주장하는 사회연대의 정신은 곧 “세계동포주의”로서 아나키즘의 상호부조 정신에 영향받은 동시에 동학의 사유를 표

63. 김기전(소춘, 앞의 글, 53쪽.(김기전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가 아닌 “만국의 무산자여 단결하라!”고 하였다)

64. 정규선, 「개조문제에 관여하는 사회연대의 정신」, 『개벽』27, 1922.9, 30쪽.

65. 위의 글, 30쪽.

방한 것이다. 그는 먼저 각 나라의 역사, 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연대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들의 문제점을 타파해 나가고자 했다.

〈표1〉 기존 사회연대정신 비판⁶⁶

| 연대정신의 사례 | 연대정신의 한계점 |
|------------------|---|
| 동양의 가족연대 (舊사회정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연대가 점차 확장되어 도당 및 계급연대로 나아갔으나 공동생활의 정신은 가족내부에서만 강할 뿐임 ·협익(狹益)한 지방적, 부분적 단체심에 국한되어 상호부조의 정신이 박약하며 민족연대, 인류연대, 사회동포주의의 연대로 나아가지 못함 ·때로는 이로 인해 흉독(凶毒)한 폐해가 발생함 |
| 미국의 동종영업의 연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왕 포드는 “한 사람을 도움이 모든 사람을 도움이요, 한 사람을 상하게 함이 만인을 상하게 함이라” 하여 자기와 타인에게 연대정신을 실행한다함 ·이는 동종영업에 종사하는 동업동지의 연대로서 상호부조로 실행되어나간 측면은 있으나 타종영업, 타종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호간 연대정신이 발휘되지 못함 |
| 칼 맑스의 노동자 연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산당 선언」에서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절규는 자본가의 전횡난폭(專橫亂暴)에 대한 노동자의 대항이었으나 이 역시 계급적·도당적 연대에 불과함 ·자본계급에 대한 투쟁의 관념에만 갇혀 진실한 만민동포의 관념에 기초한 공산사회의 실현을 알지 못함 |

전통적인 가족연대는 민족연대, 인류연대, 사회동포주의의 상호부조정신으로 나아가지 못하였고, 가족이기주의에 매몰되었으며, 미국의 포드가 말한 연대정신은 결국 동일업종에 국한된 것이었다. 또한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만국노동자여 단결하라’라고 선언한 노동자연대 역시 계급적·도당적 연대에 불과하고 자본계급에 대한 투쟁관념에만 갇혀있어 만민동포주의에 기초한 공산사회 실현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것이 정규선의 주장이다. 따라서 정규

66. 위의 글, 30~31쪽.

선이 지향한 사회주의는 사회연대정신에 기초한 것으로서 “초국가적 세계만국을 통해 노동자뿐만 아니라 각 민중의 연대사회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즉 “만민동포의 관념에 바탕한 공산사회의 실현”으로서 미래사회는 진실한 인류동포, 형제적 관념으로 한 공산적 사회가 아니면 공산사회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社會主義는 卽 一般으로 超國家의 世界萬國을 通하여 勞働者 外에도 各 民衆의 連帶社會를 建設코자 함에 努力할 것이다. 그러면 此 點에서 社會主義는 社會連帶의 精神을 根本으로 할 것이어늘 往往이 彼等은 專히 一部의 資本階級에 對한 爭鬪의 觀念에만 幽囚 되었으며 眞實한 萬民同胞의 觀念에서 基하는 共產社會의 實現에 向하여는 그 向方을 不知한다. 將來의 社會는 眞實한 人類同胞 兄弟의 觀念으로 한 共產의 社會가 아니면 不能할 것을 思하노라.⁶⁷

정규선이 말한 사회연대정신은 가족이나 민족, 혹은 특정 계급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만민동포의 관념에 기초한 공산사회의 실현으로 나아가는 것에 있고, 공산주의자가 말하는 것과 같이 자본문제의 혁신이나 재산의 공동분배로만은 공산사회를 실현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특히 사유재산을 법제의 위력으로 철폐하여 공산사회를 건설하고자 할 경우 인류는 한낱 기계로 전락하고, 생활관계가 무미건조한 동물이 될 뿐임을 경고했다.

社會連帶精神을 徹底케 함에는, 簡單으로 思量하면 百般의 惡弊를 釀造하는 資本問題에 及하여 革新할 것이라고들 하얏스나 반듯이, 共產主義者가 稱함과 如히 財産의 共同分配로마는 決코 神效한 良藥이 되지 못할 것이다. 勿論 生活의 保障이라 하는 데에는 絶對로 必要할지나, 그러나 此는 必히 私有財産을 法制의 力으로 撒廢함으로마는 生活의 保障이 來하는 것이 아니니 萬若 法制의 威力으로 因하여 共產社會를 建設코자 하는 境遇에는 人類는 一個의 機械로 되어 一切 生活關係에 人生味가 無한 卽 乾燥無味한 動物이 됨에 不外할 뿐이라. 所得의 公平한 分配를 機械的, 律法的으로 確保한다 함을 바라지 못할 것이다.⁶⁸

정규선이 말하는 공산사회의 실현과 소득의 공평한 분배는 정치권력이나 법

67. 위의 글, 31쪽.

68. 위의 글, 31~32쪽.

제의 힘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인간은 물질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정신적·창조적 요구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회개조로서 사회연대정신의 발휘는 ① 인간 내부로부터의 소유욕, 재산욕을 제어하고, ② 인간 본성의 진리와 영묘(靈妙)한 우주의 진리를 깨달아 ③ 창조적으로 자신의 인격향상을 도모함에서 비롯된다. 소유욕(재산욕)은 독점의 욕구와 분리의 경향이 강해 사회연대의 정신을 소모하고, 창조적 인격은 진리 추구하고 융합일치의 경향이 강하여 사회연대정신을 발달시킨다. 따라서 당시 볼셰비즘에서 주장되고 있는 공산사회는 사회연대정신을 발휘시킬 근본적 자격이 없고, 방향과 방법도 완전하지 못하며 일시적 사회의 치료제는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것이 못됨을 주장했다.

정규선이 지향한 인류의 평등은 전인류가 성별, 계급, 인종의 차이를 넘어 누구나 평등하게 문화적 창조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을 부여받는 것이었다. 이는 곧 무계급적 민주주의로서 인류의 최고 가치는 재산이 아니라 “민중평등의 문화적 창조사업으로부터 오는 인류관계의 애정”에 있다 하였다. 자기 인격의 향상은 사회생활에 대한 애정의 실행에서 올 수 있고, 인간 스스로가 신격(神格)을 자각한 연후에 신적 권위가 확립되어 그 권위로 문화적 창조행위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정신이 아니면, 어떠한 사회제도를 개조하거나 경제생활의 자유를 얻더라도 인류 공동의 이상적 사회는 건설될 수 없다는 것이다.⁶⁹

정규선은 중국 및 러시아 공산당과 연계하여 활동했고⁷⁰, 1924년 블라디보스톡에서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보광(普光)학교에서 다년간 교편을 잡고 있다가 코민테른의 지시로 조선 내지에 들어와 활동하다 체포되었다.⁷¹ 1926년 출옥 후에는 중국 길림으로 건너가 미곡상과 금광을 경영하면서 비밀히 양기탁 등과 고려혁명당⁷²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다시 1930년 길림영사관 경

69. 위의 글, 33쪽.

70. 「죽어도 자백안해, 정규선 사건은 점점 확대, 西大門署 二隊로 허덕지덕」, 『동아일보』, 1924.10.13.

71. 「주모자 1명 도망, 서대문서 필사적으로 대활동 정규선 사건의 내용」, 『동아일보』, 1924.10.16.

72. 고려혁명당은 1926년 4월 5일 만주 길림성에서 설립된 독립운동단체였다. 해월 최시형의 아들 최동희, 정규선 등을 비롯해 고려혁명위원회(천도교 독립운동단체) 회원 다수가 가입했다. 이는 민족주의

찰에 체포되어 평안북도 경찰부로 압송되었다가 1939년 사망하였다.⁷³

V. 결론: 반제의 사회주의 연동과 동북아로의 연대

동북아시아 사회주의 수용에서 형성된 양대 세력은 아나키즘과 볼셰비즘이었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반제동맹으로서의 연대, 아나키즘과 볼셰비즘의 혼재라는 사상적 연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코민테른 하에 움직였던 동북아 차원의 연동이었다. 크로포트킨이 말한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한다.”는 주장은 중국 아나키스트들로 하여금 “인민의 공덕심을 환기”시키고, 개인과 사회의 호조를 중시하며 일체의 권위를 버리고 공동의 행복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한편 아나키즘과 볼셰비즘은 결합되었지만 점차 볼셰비즘으로 중심이 이동한 것은 현실론에 따른 것이었다. 개인의 절대자유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개인의 자발적인 투쟁론은 허약하며 맑스주의에 기초한 프롤레타리아 정당의 건설을 통해 혁명을 이룩해야 한다는 볼셰비키의 현실론에 무게가 실렸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각자 필요에 따라 소비한다”는 아나키스트의 이상론과 “각자 노동에 따라 소비한다.”는 맑스-레닌주의자의 현실론이 상호 혼재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도 하나의 과도기로서 이해되어 아나-볼의 결합을 이루었던 것은 반제투쟁의 절박한 상황이 이론의 정치함보다 우선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초기 조선 사회주의 운동을 주도한 것도 「조선노동공제회」나 「신생활사」를 중심으로 한 아나-볼셰비키였다. 조선노동공제회는 조선 최초의 노동단체로서 노동자의 자유노동문화와 노동의 신성을 자각시키고자 했고, 신생활사는 러시아혁명을 예찬하면서 노동대회와 노동조합을 조직해 나갔다. 원래 바쿠닌에서 크로포트킨으로 이어지는 아나키즘은 맑시즘과 대립되는 경향이 컸지만

당 운동의 일환으로서 당원 중에는 사회주의자가 많아 사실상 공산당이라 불렀고, 1926년 12월 이당락이 장춘에서 체포될 때 고려혁명당 서류를 가지고 있어서 관계자들이 다수 검거되었다.

73. 「고려혁명위원 정규선 검거, 길림영사관경찰에」, 『동아일보』, 1930.09.12.

러시아를 거친 맑시즘은 레닌주의, 혹은 볼셰비즘으로 재호명되면서 상황 상어나키즘과 자연스럽게 융합된 측면이 있다. 또한 아나키즘에서 볼셰비즘으로 분화되는 과정도 거치면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조선노동공제회」의 고희순 사건이 그러하고, 「신생활사」의 필화사건이 그러하며 또한 아나키즘 단체 흑도회가 흑우회와 북성회로 분화된 것도 그 사례의 하나가 된다. 잡지 개혁에 최초로 마르크스 이론을 소개한 정태신도 흑도회 멤버였지만 볼셰비즘으로 중심을 이동했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이 동학(천도교) 사회주의인데 당시 천도교는 동학사상에 바탕 하여 아나키즘과 볼셰비즘을 비판적으로 수용했다. 특히 정규선은 마르크스의 계급투쟁이 자본가에의 대항에만 갇혀있음을 비판하여 만민동포의 관념에 기초한 공산사회의 건설을 지향했다. 그는 사회연대의 정신에 근거한 사회주의를 표방했고, 미래사회는 진실한 인류동포, 형제적 관념으로 한 공산적 사회가 아니면 공산사회 실현은 불가능한 것이라 주장했다. 만약 공산주의자들이 법적 위력으로 자본계급의 소멸이나 사유재산 철폐를 통해 공산사회를 실현하려 한다면 인류는 한낱 기계로 전락하고 무미건조한 동물적 생활이 될 뿐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물질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정신적 창조적 요구를 가진 존재이고, 진정한 공산사회의 실현은 인간 스스로 소유욕을 제어하고 인간 본성의 우주적 진리를 깨닫는 신격(神格)에서 시작된다. 다시 말해 공산사회의 이상적 사회는 재산이 아니라 신격에 의한 “문화적 창조행위”에 있고, 이로부터 오는 “인류관계의 애정”에 바탕한 근본정신이 아니면 어떠한 사회제도를 개조하고 경제생활의 자유를 얻더라도 인류공동의 이상적 사회는 건설될 수 없음을 그는 주장했던 것이다.

근대 동북아시아의 사회주의 수용과 연대는 계급해방이 곧 민족해방이라는 인식하에 동북아가 제국주의에 맞서 함께 싸웠던 전략적 선택이자 역사의 공통경험이었다. 그러나 일제는 사회주의 운동을 불온한 ‘빨갱이 범죄집단’으로 몰아 탄압했고 해방 이후에는 미국에 의한 냉전체제 구도 하에 사회주의는 악의 축이 되었다. 동북아를 미국, 일본, 남한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과 중

국 및 북한,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으로 나누어 이념대립, 선악대립의 냉전체제로 갈라놓고 미국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프레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향후 동북아의 연대는 근대 반제국주의 연대의 경험을 살리고, 미국이 설정한 냉전체제의 프레임을 해체하여 제국주의의 길이 아닌 평화의 길을 새롭게 모색해 나감에서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동북아 각국의 사회주의 경험 가운데 긍정적인 경험을 살려 상호 인식을 공유하고 한반도를 비롯해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아가자 하는 인식의 공유에서 시작될 것이다.

참고문헌

『개벽』

『高等警察關係年表』

『공제』

『동광』

『동아일보』

『시대일보』

『신생활』

『아성』

『중외일보』

『현대평론』

김미지, 「동아시아와 식민지 조선에서 크로포트킨 번역의 경로들과 상호참조 양상 고찰」, 『비교문화연구』43,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6.

레닌, 『제국주의론』, 남상일 역, 백산서당, 1988.

모리스 메이스너, 『李大鉞: 중국사회주의의 기원』, 권영빈 역, 지식산업사, 1992.

文國柱 編著, 『朝鮮社會運動史事典』, 고려서림, 1991.

박종린, 「일제하 사회주의사상의 수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_____, 「1920년대 초 사회주의사상의 수용과 『新生活』」, 『사림』49, 2014.

이매뉴얼 C.Y. 쉬, 『근-현대 중국사(下)』, 조운수·서정희 역, 까치, 2013.

정혜정, 「1920년대 동북아시아의 사회주의 연동과 조선 신문화운동: 천도교 잡지 『개벽』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34-2,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2019.

조세현, 「보이팅스키의 중국 방문과 사회주의자동맹: 중국공산당 창립 시기 아나키즘·불세비즘 합작과 분열」, 『중국사연구』36, 중국사학회, 2005.

_____, 「동아시아 3국(한중일)에서 크로포트킨 사상의 수용」, 『중국사연구』39, 중국사학회, 2005, 271쪽.

_____, 『동아시아 아나키스트의 국제 교류와 연대』, 서울: 창비, 2010.

포르트 알레세예비치 크로포트킨, 『빵의 쟁취』, 이상률 역, 서울: 이책, 2016.

크로포트킨, 『크로포트킨 자서전』, 김유곤 역, 서울: 우물이 있는 집, 2003.
高津正道, 「支那に於ける無政府主義운동」, 『勞動運動』8, 1921.

Abstract

Acceptance of Socialism as colonial Chosun and solidarity in Northeast Asia: Focus on Anarchism and Bolshevism, Donghak Socialism -

Jeong, Hye-jung (Wonkwang University, HK Research Professor)

Anarchism and Bolshevism became mainstream in Chosun's acceptance of communism, and they exhibited mutually combined aspects. This is a Northeast Asian phenomenon. At the beginning of the establishment of the Russian Bolshevik government, there existed an Anarcho-Bolshevik among Russians. And before the founding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it is already established that anarchism has had a profound effect on rudimentary Bolsheviks. The first Korean labor organizations, the Korean Workers' Association(1920) and the New Life Publisher(新生活社, 1922) of Socialism, typically show the acceptance of the early anarchism and the movement of Anarcho-Bolshevism. In addition, the Chosun Labor Mutual Association focused on the subjective awareness of the workers and the education and cultural movement based on Anarchism. On the other hand, the New Life Publisher introduces anarchism, but it focuses on Bolshevism, giving a glimpse of the difference in focusing on the working class struggle. Also, Donghak(Cheondogyo) socialism should be noted in the acceptance of Joseon. At the time, Cheondogyo critically accepted Anarchism and Bolshevism based on the philosophy of Donghak. Representative Jung Gyu-Seon asserted socialism based on the spirit of social solidarity, and insisted that the future society would be impossible to realize a communist society unless it was a communist society based on true humanity and brotherhood. The true communist society is not a property owned, but a "cultural creation act" by the homodeus. And the ideal society of humanity cannot be built unless it is a fundamental spirit based on the "affection of human relations."

Keywords: Socialism, Solidarity in Northeast Asia, Anarchism, Bolshevism, Donghak socialism

논문 투고일 : 2020년 3월 24일

심사 완료일 : 2020년 4월 16일

게재 확정일 : 2020년 4월 19일